野, 국민에 희망 못주고 자멸했다

■ 민주 참패·새누리 승리 원인은

與, 보수 똘똘뭉쳐 각종 악재 돌파

野, 공천 분란에 나꼼수 눈치보기

4·11 총선 결과, 민주통합당이 압승할 것이란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에 따라 12년 만에 올 것으로 예상됐던 '여소야대'는 물 건너가고 참패 위기까지 몰렸던 거대 여당의 독주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압승=지난해까지만 해도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제1당 특히 과반을 얻을 것이라는 예상은 전혀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오히려 100석도 건지지 못할 것이란 '자학적(?)' 전망까지 나올 정도였다. ▲디도스 사건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 ▲대통령 측근 비리 ▲민간인 불법사찰 등 각종 악재가 연이어 터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후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는 한편 혁신의 모습을 보여줬으며 공천에서도 과감한 물갈이로 서서히 여론의 반전을 이끌기 시작했다. 더욱이 위기 의식을 느낀 보수세력이 똘똘 뭉치면서 12일 새벽 1시30분 현재 152석(예상치)이라는 선거 초반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의석을 확보했다.

◇민주당 예상 밖 참패=지난해말 야권통합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제1당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전망이었다. 또 지난 3월10일 통합진보당과의 야권 연대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여소야대'는 물론 야권이 과반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까지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천이 본격화되면서 이 같은 분위기는 반전됐다. 우선 물갈이를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을 뒤로하고 친노(친노무현) 세력 일색의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공천을 받으면서 당내 분란이 일기 시작했다. 탈당과 무소속 출마가 이어졌고 당 지지율은 급락하기 시작했다. 특히 막말 파문을 일으킨 김용민 후보의 사퇴를 이끌지 못하고 눈치만 보면서 참패를 자초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한명숙 대표는 이 과정에서 아무런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고 한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486 친노세력은 선거주도권을 잡지 못한 채 새누리당에 이끌려가면서 자멸하는 선거를 만들었다는 게 중론이다.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 성적은=통합진보당의 이번 총선 최대 목표는 20석을 확보,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두자릿수 의석을 건지면서 명실공히 원내 제3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19대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1당에 실패한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면 통합진보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한 자릿수 의석수를 확보하는데 그쳐 당의 존폐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민심은 어디로=비록 여당이 압승을 거뒀지만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야당의 자멸 때문에 여당이 승리했다는 분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11일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의 기저에는 '여당이 잘한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야당이 정권을 잡을 만한 실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며 "야당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는 선거를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여당이 전체적으로 승리했지만 수도권 민심에서 알 수 있듯이 민심이 우리 편이라고 말하기는 무리"라고 분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도 새누리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원장과 당직자들이 서울 당 상황실에서 새누리당의 선전 소식에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침통 민주당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등 당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19대 총선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국 요동… 주도권 다툼 치열할 듯

박근혜 대선 '탄탄대로' … 한명숙 대표 사퇴 가능성

4·11 총선 결과 새누리당의 원내 제1당 유지와 함께 사실상 '여대야소' 정국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정국 주도권 다툼이 한층 치열해 질 전망이다.

선거 초반까만 해도 '정권심판론' 속에 확실한 여소야대 구도가 예상됐으나 민주당의 잇따른 '실책' 등으로 새누리당이 1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의석 수 차이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여야는 앞으로 정국의 주요 이슈를 놓고 사사건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총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반면, 새누리당은 총선 승리를 기반으로 민주당의 공세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의 승리로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권력 누수)의 속도는 상당부분 완화될 전망이지만 정국주도권은 청와대가 아닌 새누리당으로 확실하게 이동될 것으로 관측된다.

총선 결과에 따라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두고 상당한 자신감을 보일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과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 등 지난 2004년 탄핵정국 이상의 악조건 하에서 당명까지 바꾸는 승부수를 던진 끝에 극적인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선의 향배를 결정하는 수도권에서 열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심각할 전망이다.

선거 초반만 해도 여권의 악재로 야대여소가 확실해보였으나 모바일 경선 논란, 공천 잡음, 정책 혼선, 김용민 막말 파문 등 이번 선거 패배를 민주당이 자초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일단 한명숙 대표는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선거 다음날인 12일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12월 대선까지 비상대책위원회의 체제로 갈 것인지 전당대회 차점자가 대표직을 승계할지를 놓고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총선 결과

야권연대 위력 발휘

11일 치러진 제19대 총선 개표 결과 광주·전남지역은 민주통합당의 아성임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주통합당은 전체 19석 가운데 16석을 차지하고, 야권연대 후보와 무공천 지역에서 친 민주계 무소속 후보까지 당선되면서 사실상 압승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가 위력을 발휘해 새누리당과 무소속 후보의 돌풍을 잠재웠으며, 연말 대선정국으로 이어지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또 선거 초반 무소속과 새누리당 후보들의 돌풍이 거센데다 '투신 사망'사건과 '관권선거' 등 국민경선 부작용이 커 민주당 후보들의 고전이 예상됐지만, 야권연대의 힘이 발휘되면서 그 결과는 민주통합당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이긴 하지만, 광주지역에서 첫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했고, 순천·곡성의 김선동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민주당 텃밭에 진보정당의 뿌리가 내렸음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정치적 의미가 남다르다는 분석이다.

이번 총선 결과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역대 선거사상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3명의 야권연대 단일후보가 탄생했고, 이들이 모두 승리함에 따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간 야권연대 위력이 유감없이 발휘됐다는 점이다.

이러한 야권연대 위력 탓에 민주통합당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현역 국회의원들은 무소속 돌풍을 일으키지 못하고 결국은 모두 쓰라린 패배를 맛봤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의 민주통합당의 압승과 광주 서구 을 야권연대 단일후보의 승리 배경에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간 야권연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통합당은 무소속 돌풍을 잠재우기 위해 나주·화순 선거구와 광주 서구 갑에서 통합진보당과 2차 야권연대를 이뤘고, 이 덕분에 무소속과 경합지역이었던 2곳에서 모두 승리하는 결과를 거뒀다.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광주와 전남에서 무소속 후보가 4명이나 당선됐던 점을 감안하면, 야권연대를 통해 효과적으로 무소속 후보들에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나주·화순, 서구 갑 선거구 2곳에서 후보를 용퇴시키는 '통큰 양보'를 통해 광주 서구 을의 야권연대 단일후보인 오병윤 후보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최권일기자 cki@

낯日만평

- 김종두

가시방석이 따로 없군